

#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Cultural Competence upon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Nursing Students

조영미\*, 석소현\*\*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경희대학교 간호학부\*\*

Young Mi Cho(choyoung23@ch.ac.kr)\*, So Hyune Sok(5977sok@khu.ac.kr)\*\*

### 요약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다문화 수용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요인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645, p<.001$ ;  $r=.556, p<.001$ )가 있었고,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문화 인식( $\beta=0.479, p<.001$ )과 문화적 역량( $\beta=0.299, p<.001$ )임을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은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적 역량을 키워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다문화 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그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 다문화 인식의 고취와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간호대학생 | 다문화 인식 | 문화적 역량 | 다문화 수용성 |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and the degree of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The study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The correlation among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was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it was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to figure out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acceptance. RESULTS: Multicultural acceptanc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 $r = .645, p < .001$ ;  $r = .556, p < .001$ ).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multicultural perception ( $\beta = 0.479, p < .001$ ) and cultural competence ( $\beta = 0.299, p < .001$ ) were factors that influence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acceptance.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nursing students should develop cultural competency as a way to increase multicultural acceptan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Also,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content and the policy backing should be supported that promotes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enhances cultural competence.

■ keyword : | Nursing Students | Multicultural Perception | Cultural Competence | Multicultural Acceptance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 취업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거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1] 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사는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제는 가히 다문화 사회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어오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다문화 혼인건수는 20,835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혼인의 7.9%를 차지하며, 다문화 출생 역시 18,440명으로 전체 출산의 5.2%를 차지하였다[2]. 이와 같이 다문화 사람들이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2006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다문화 대상자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에 의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기관의 이용률도 증가하였다[3].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까지 3,009개의 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고, 총 190여개의 나라에서 3,211,574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임상현장에서 다문화 대상자의 증가는 간호전문인들에게 다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되었다. 더불어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에게 다문화 간호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상자에 대하여 편견 없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권 대상자를 간호하게 될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다문화 인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인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사회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5]. 다문화 인식이 높을수록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으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6]. 그러므로 급격한 글로벌화 현상으로 간호대상자가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

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보건의료 이용 대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은 중요하다[3]. 더불어 다문화 인식을 향상시키기에 앞서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문화적 역량은 다른 언어 그리고 문화에서 오는 차이와 영향을 이해하는 것으로, 다문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건강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는 일련의 행동, 태도 정책을 의미하며[7], 문화적 역량은 문화역량, 문화적 민감성, 다문화 역량, 등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8]. 간호 임상현장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지식에 기초하여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감성을 가지고 적절한 임상간호기술을 적용하는 문화적 역량은 간호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요건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다양한 구성원이 조화로운 공존을 해야 하는 현실에 맞닥뜨린 간호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음에서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9].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의 수준을 파악하고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수용성이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틀림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태도이고 주류인 거주민이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능력이다[10][11]. 간호사로서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배척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존중하며[3] 그들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의료인으로써 중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다문화 간호를 담당하게 될 예비 의료인으로써 간호사로서의 자질인 다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와 수용적인 태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12].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감[13], 문화적 공감과의 관계[12], 대학생들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경험[14]을 보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척도의 개발[10]이나 다문화 이해와 태도와의 관계를 [15] 본 것이 대부분이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간호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역량,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확립과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과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다문화 수용성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관계에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였다. 대상자는 경상북도 소재 G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과장에게 설명 후 학과의 승인을 얻어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동의서 작성의 방법을 설명하였다. 동의서는 연구원이 받았고, 동의서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동의서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개인정보와 조사된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의 종료와 함께 설문지가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표

본의 크기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G\*Power 3.1.9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중간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그리고 예측변수를 2개 지정하였고 최소한의 표본 수는 107명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 162명 중 불성실한 설문자 5명을 제외시켜 본 연구에 이용된 대상자는 총 157명으로 조건에 충족되었다.

### 3. 연구도구

#### 1) 다문화 인식

다문화 인식은 이은주[16]가 개발한 도구를 김성희[17]가 수정·보완한 것으로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성희[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0.75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0.800이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의 방식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한석영[18]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개의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의 방식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 0.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0.91이었다.

#### 3)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박혜숙[19]이 개발한 대학생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0.86으로 분석되었다.

###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 특성에 대하여 서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다문화 수용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요인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별은 여자가 124명(79%), 남자가 33명(21%)이었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4세였고 21-25세가 가장 많은 127명(80.9%)이었으며 그 뒤로 20세 이하가 19명(12.1%), 26세 이상은 11명(7.0%)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04명(66.2%)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29명(18.5%),

불교와 천주교가 각각 12명(7.6%)이었다.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145명(92.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해외여행의 경험이 있는 학생의 수도 103명(65.6%)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학생은 51명(34.4%)으로 없다고 응답한 학생(106명, 67.5%)의 절반수준에 미쳤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성적은 중간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14명(72.6)이었고, 상 20명(12.7), 하 23명(14.6)이었다[Table 1].

#### 2.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은 5점 만점에 3.803점이었고, 문화적 역량은 3.319점, 다문화 수용성은 3.599점

Table 1. Difference of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Multicultural Accept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7)

Variables	Categories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Multicultural Acceptance	
		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Age	Under 20	19 (12.1)	3.625± 0.754	1.324 0.269	3.300± 0.506	1.045 0.354	3.558± 0.485	2.525 0.083
	21-25	127 (80.9)	3.827± 0.472		3.338± 0.453		3.586± 0.319	
	above26	11 (7.0)	3.829± 0.400		3.134± 0.341		3.820± 0.303	
Gender	Male	33 (21.0)	3.803± 0.467	0.000 0.997	3.353± 0.469	0.228 0.633	3.622± 0.324	0.173 0.678
	Female	124 (79.0)	3.803± 0.523		3.310± 0.451		3.593± 0.351	
Religion	Christian	29 (18.5)	3.862± 0.401	0.782 0.506	3.352± 0.502	0.456 0.713	3.670± 0.255	1.208 0.309
	Catholic	12 (7.6)	3.729± 0.408		3.447± 0.496		3.668± 0.307	
	Buddhism	12 (7.6)	3.614± 0.961		3.277± 0.617		3.467± 0.453	
	None	104 (66.2)	3.817± 0.477		3.300± 0.416		3.587± 0.355	
Multicultural Education	Yes	145 (92.4)	3.816± 0.515	1.239 .267	3.336± 0.462	2.696 .103	3.603± 0.345	0.219 .641
	No	12 (7.6)	3.645± 0.435		3.114± 0.277		3.554± 0.359	
Foreign Travel	Yes	103 (65.6)	3.821± 0.472	0.381 0.538	3.377± 0.446	4.955 0.027	3.626± 0.301	1.77 0.185
	No	54 (34.4)	3.768± 0.578		3.209± 0.451		3.549± 0.414	
Foreign Friend	Yes	51 (32.5)	3.904± 0.549	2.998 0.085	3.397± 0.489	2.21 0.139	3.671± 0.368	3.343 0.069
	No	106 (67.5)	3.754± 0.486		3.2827± 0.43317		3.565± 0.329	
Grade Point Average(GPA)	High	20 (12.7)	3.775± 0.659	0.035 0.965	3.459± 0.569	2.199 0.114	3.665± 0.286	0.421 0.657
	Middle	114 (72.6)	3.808± 0.493		3.325± 0.421		3.588± 0.361	
	Low	23 (14.6)	3.804± 0.471		3.172± 0.479		3.596± 0.312	

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s of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Multicultural Acceptance (N=157)**

Variables	M±SD	Range
Multicultural Perception	3.803±0.510	1-5
Cultural Competence	3.319±0.454	1-5
Multicultural Acceptance	3.599±0.345	1-5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다문화 인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은 해외여행의 경험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955, p=.027$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에서 역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 4.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 모두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645, p<.001$ ;  $r=.556, p<.001$ )를 보여주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with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Multicultural Acceptance**

Variables	Multicultural Perception r (p)	Cultural Competence r (p)	Multicultural Acceptance r (p)
Multicultural Perception	1		
Cultural Competence	.556** (.000)		
Multicultural Acceptance	.645** (.000)	.565** (.000)	1

### 5.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에서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1.939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690이었다.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448로 기준치인 10미만으로 나타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 수용

성은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에 의하여 47.1% 설명되었으며( $F=70.560, p<.001$ ),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다문화 인식( $\beta=0.479, p<.001$ )과 문화적 역량( $\beta=0.299, p<.001$ )임을 확인하였다[Table 4].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Multicultural Acceptance (N=157)**

	B	$\beta$	SE	t	p	R <sup>2</sup>	Adj. R <sup>2</sup>	F(p)
(Constant)	1.613		0.169	9.522	<.001	.478	.471	70.560 (<.001)
Multicultural Perception	0.324	0.479	0.047	6.839	<.001			
Cultural Competence	0.227	0.299	0.053	4.267	<.001			

##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인식 수준은 3.803점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인식 수준은 김정아와 최정[3]이 보고한 3.63점 그리고 김남희와 임선영[20]의 연구에서의 3.56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을 보여주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수준은 일반 대학생들의 3.32보다 높은 3.45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21]. 문화적 역량 수준은 3.319점으로 나타나 중간 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최숙희[22]의 연구에서 3.27점으로 나타났고, 김미숙과 신동수[23]의 연구에서는 3.26점을 나타내어 본 연구 결과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 역량의 수준 역시 간호대학생이 (3.35점) 일반 대학생들(3.23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 본 연구에서 다문화 수용성은 3.599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값을 보여주었다. 이인숙과 조주연[13]의 연구에서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은 3.30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노윤구와 이외선[12]의 연구에서는 3.64점을 보여주어 본 연구에서 더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대체적으로 선행연구

보다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의 시행 시점을 감안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변하는 매스미디어로부터의 정보나 주변에서 경험한 다문화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나이, 성별, 종교, 다문화 교육의 경험, 해외여행의 경험, 외국인 친구의 유무, 성적은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수업의 이수 여부에 따라서 다문화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20]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박진옥과 김정수[5]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여부가 다문화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이는 다문화 교육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그 차이를 극명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다문화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의 콘텐츠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해외여행의 경험이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박미정과 유하나[25]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 학생이 그리고 다문화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이 유의하게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고 하였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에서[11] 외국인 친구의 유무나 다문화 교육경험의 유무는 문화적 역량에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역시 두 가지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일반적 특성은 해외여행의 경험이었으며, 이것이 뜻하는 것은 외국문화에 노출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착안하여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다른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13], 간호대학생들의 실질적 문화적 체류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와는 상이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것을 착안하면,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외국인을 만날 경험이나 외국인 친구를 만

들 경험의 부재로 사료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의 유무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와[11][13]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92.4%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대상자들이 어떠한 교육 경험인지 알 수 없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22]. 이는 다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는 것에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문화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과 양의 상관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여[15]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선행연구의 대상자가 초등학생임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그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 다문화 인식의 고취와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 모두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문화적 역량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26]. 이는 대상자들이 타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적 역량을 키워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이나 프로그램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다문화인들에 대한 수용성이 요구되는 사회이다[14]. 다문화 사회에서 간호사 그리고 미래

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관심과 대상자를 만나 그들을 돕는 것은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11]. 그러므로 미래 다문화 간호를 시행할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을 올리는데 정책적으로도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간호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역량,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에서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의 상관과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은 양의 상관성이 있었으며,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의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다 사료된다. 특히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체험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내용개발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추후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적용하지 않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추가적인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 참고 문헌

- [1] 윤선화, 김기홍, 김재태,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주거만족 및 계속 거주 의향에 관한 실증연구-외국인 대상 기업공인증개사의 증개 경험을 중심으로-,” 부동산경영, 제17권, pp.257-284, 2018.
- [2] 통계청,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a2c24545aff84f0d82f918ac68bdf676.hwp&rs=/rsfiles/201908/>, 2018.
- [3] 김정아, 최정,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민감성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 다문화연구, 제9권, 제4호, pp.67-88, 2016.
- [4] 통계청, “2017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https://www.khidi.or.kr/board/view?menuId=MENU00085&linkId=48735148>, 2018.
- [5] 박진옥, 김정수,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논총, 제68권, pp.25-55, 2018.
- [6] 홍서연, 손병덕, 손주희, “국민의 다문화 인식이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거주국김능 중심으로,” 다문화화 평화, 제13권, 제3호, pp.300-324, 2018.
- [7] P. Govender, D. M. Mpanza, T. Carey, K. Jiyane, B. Andrews, and S. Mashele, “Exploring cultural competence amongst OT students,”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pp.1-9, 2017.
- [8] 손현미, 제민지, 이병준,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통합적 고찰,” 문화예술교육연구, 제9권, 제4호, pp.25-47, 2014.
- [9] 박소영,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및 다문화 경험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12호, pp.345-355, 2016.
- [10] 김미진, 정옥분,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제17권, 제4호, pp.69-88, 2010.
- [11] 김경희,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8호, pp.211-219, 2018.
- [12] 노윤구, 이외선,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접촉경험과 문화적 공감에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제11호, pp.373-381, 2018.

- [13] 이인숙, 조주연,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다문화건강학회지, 제5권, 제1호, pp.1-9, 2015.
- [14] 정명희, 박외병,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제7권, 제2호, pp.81-105, 2014.
- [15] 이선아, 방기혁,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17호, pp.837-856, 2017.
- [16] 이은주, *경인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인식과 요구분석*,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7] 김성희,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교육에 대한 인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8] 한석영,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 개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19] 박혜숙, “대학생 대상 다문화 수용성 척도 타당화,” 교육과학연구, 제44권, 제2호, pp.219-248, 2013.
- [20] 김남희, 임선영,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및 다문화 효능감의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제7권, 제4호, pp.169-184, 2014.
- [21] 전미순, 이슬기, 이아름, 이에주, 이유진, 이윤정, 김자연,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정도,” 다문화건강학회지, 제6권, 제2호, pp.39-44, 2016.
- [22] 최숙희,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6권, 제6호, pp.3379-3390, 2017.
- [23] 김미숙, 신동수,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8권, 제6호, pp.3437-3450, 2016.
- [24] 이예리자, 이시은,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한국유화학회, 제35권, 제3호, pp.963-974, 2018.
- [25] 박미정, 유하나,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5권, 제1호, pp.38-47, 2019.
- [26] 한석영,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수준과 영향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4호, pp.73-86, 2016.

## 저자 소개

## 조영미(Young Mi Cho)

정회원



- 2002년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간호학사)
- 2014년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간호학석사)
- 2019년 : 경희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교육, 노인, 다문화

## 석소현(So Hyune Sok)

정회원



- 1992년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5년 : 경희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01년 : 경희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현재 : 경희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노인간호, 한방간호